차　례

제1과
《어린 김선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6살 나시던 해 봄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만경대를 떠나 봉화리로 이사가시였습니다.



봉화리살림집

봉화리는 아버님께서 나라 찾는 싸움을 크게 벌리기 위하여 자리잡으신 곳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봉화리에 오시여서도 많은 동무들과 친하시였습니다. 그래서 봉화리집으로는 날마다 많은 동무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우리 글도 배워주시고 재미나는 책도 읽어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어린 나이에 우리 글을 척척 읽고 쓰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무척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우리 글을 배워주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글 자모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자기 이름을 써보게 하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서 모든 동무들이 자기 이름을 쓸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명신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백두산, 금강산과 같은 글자를 땅바닥에 쓰면서 익히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명신학교 학생들에게 배워주시는 노래들을 모두 따로외우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무들에게도 배워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동무들을 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래서 봉화리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어린 김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2 과
말바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봉화리에 계실 때에도 군사놀이를 자주 하시였습니다.

군사놀이는 명신학교 뒤산에서 많이 하시였습니다.

명신학교 뒤산에는 여러가지 모양을 한 크고작은 바위들이 널려져있었습니다.



말바위

그가운데는 씽씽 달리는 말처럼 생긴 바위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돌을 《말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이곳에 자주 오르시여 바위타기를 하시였습니다.

《오늘은 바위타기를 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말바위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러자 동무들도 저마다 옆에 있는 바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드디여 군사놀이가 시작되였습니다.

말바위에 오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말을 몰아가는 기세로 한손으로 말잔등에 채찍질을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다른 한손으로 나무칼을 휘두르며 웨치시였습니다.

《조선군대 말타고 나간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힘찬 구령소리

는 봉화산을 쩡쩡 울리였습니다. 그러면 동무들은 저마끔 발굽으로 말허리를 차는 시늉을 하면서 웨쳤습니다.

《조선군대 씽씽 나간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돌아보시며 또다시 구령을 치시였습니다.

《우리 군대, 장수군대 번개 번쩍 나간다!》

《번개 번쩍 나간다!》

동무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구령을 되받아 성수가 나서 웨쳤습니다.

정말 일제놈들이 무리로 녹아나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은 저마다 두손을 흔들면서 《만세! 만세!》 하고 소리높이 웨쳤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말바위에서 하신 군사놀이는 동무들을 이끄시고 일제놈들을 쳐부실 힘을 키우신 뜻깊은 군사놀이였습니다.

제3과
어머님의 일손을 도와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봉화리에 오시여서도 집안의 크고작은 일을 도맡아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바삐 지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이시였지만 어머님을 도와 여러가지 일을 하시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안팎을 깨끗이 쓰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밥짓는 어머님을 도와 아궁에 불도 때고 우물에 나가 물도 길어오시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화로에 불을 피워놓고 두부장도 끓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밭일을 하시는 어머님의 일손도 잘 도우시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을 따라 밭으로 나가시였습니다.

그날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을 도와 땀을 흘리며 밭김을 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밭김을 한창 매시는데 동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어서 가서 군사놀이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일손을 멈추시고 나어린 대원수님께 동무들이 찾아왔으니 이제는 그만하고 같이 가서 놀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좀 있다 놀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다시 밭김을 매시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매자!》

동무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모두가 떨쳐나서 김을 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일손을 도와드리고서야 명신학교 뒤산에 올라가 군사놀이를 하시였습니다.

하기에 봉화리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처럼 부모님들의 일손을 잘 도와주는분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칭찬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머님의 바쁜 일손을 잘 도와드리시였습니다.

제4과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게

봉화리에는 살구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면 살구나무마다에 노란 살구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동네아이들은 때때로 남의 집 살구를 몰래 따먹다가 주인에게 욕을 먹군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살구를 따먹자고 할 때면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살구나무를 정성들여 가꾸어온 주인의 승인도 없이 남의 살구를 따먹는것은 훔치는것과 같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한번은 여러 동무들이 살구나무옆을 지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

앉는지 한 아이가 《야, 살구!》 하며 살구나무밑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노랗게 익어서 떨어진 살구가 깔려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한 살구였습니다.

앞서 가던 한 아이가 동무들쪽으로 돌아서며 말하였습니다.

《떨어진 살구야 일없겠지 뭐.》

동무들은 그 아이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살구나무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곧 동무들을 멈춰세우시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서있는 동무들에게 떨어진것도 살구나무 주인의것이니 마음대로 손을 대면 안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남의 물

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봉화리에 오신 다음부터 아이들의 품성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동무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게 잘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5과
마을사람들앞에서 하신 연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봉화리에 오신지 반년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명신학교에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학생들의 학예회를 하게 되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날을 앞두고 나어린

대원수님께 연설문을 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연설문을 외우시며 그속에 담겨진 내용을 깊이 새기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산에 오르시여 몇번이나 연설을 해보시였습니다.

어찌나 열성스럽게 련습을 하시는지 동무들이 뒤에 와서 듣는줄도 모르시였습니다.

드디여 학예회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신학교로 모여왔습니다. 교실안은 마을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학예회는 명신학교교가의 합창으로 시작되였습니다. 뒤이어 독창과 시랑송 등 여러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대앞으로 나오시였습니다. 그러자 학교가 떠나갈듯 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박수소리가 멎자 연설을 시작하시였습니다.

교실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습니다.

연설은 일제와 지주놈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불쌍하게 혼자 사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당하시는 일처럼 이야기하시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는 먹을것도 못 먹고 추위에 떨고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였다가 연설을 계속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불쌍한 아이들이 우리 나라 그 어디에 가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모든것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

때문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잘살자면 일제와 그 앞잡이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 나라 찾는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며 연설을 끝마치시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연설을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김형직선생님의 자제분이 보통소년이 아니다.》고 감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연설을 아주 잘하시였습니다.

제6과
무엇이나 자신의 힘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봉화리에 계실 때였습니다.

명신학교앞으로 흐르는 개울옆에는 작은 샘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터를 거두는 사람이 없어서 덤불속에 묻히고말았습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어느날 나어린 대원수님과 함께 그 샘물터를 깨끗이 손질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샘물터주변에 있는 풀을 베고 우물을 가셔내신 다음 깨끗한 자갈을 정히 까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집에서 쪽박 하나를 내다가 샘물우에 띄워놓으시였습니다.

덤불속에 묻혔던 샘물터가 하루사이

에 깨끗한 박우물로 변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날 나어린 대원수님께 자기가 사는 곳은 자기가 알뜰히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신 다음부터 놀이감을 하나 만들어도 꼭꼭 자기 힘으로 만드시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마당에서 수수대로 안경을 만들고계시였습니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동네어른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도와드리려고 선자리에서 수수대안경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였습니다.

《놔두십시오. 내 힘으로 멋있는 안경을 하나 만들어보겠어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내 자신의 힘으로 수수대안경을 훌륭하게 만들어내시였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봉화리아이들은 물총을 가지고 군사놀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물총이 더 멀리 나가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런 물총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제일 멀리 쏠수 있는 물총을 만들어내리라 다짐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명신학교뒤산과 봉화산을 오르내리시면서 물총을 만드는데 쓸 곧은 가래나무를 찾아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나무로 물발이 제일 멀리 가는 물총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만드신 물총을 보게 된 아이들은 저마다 그것을 쏘아보며 부러워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이나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내시였습니다.

제 7 과
똑같이 나누신 살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봉화리에 계시던 해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데리고 살맹이를 따러 봉화산으로 가시였습니다.

그때 봉화산에는 살맹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동네아이들이 떨쳐나 살맹이를 따군 하였습니다.

이날도 동무들은 제가끔 흩어져 먹음직

하게 익은 살맹이를 따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모두 모이게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들이 딴 살맹이 량은 서로 달랐습니다. 재빠른 동무들은 많이 따고 굼뜬 동무들은 얼마 따지 못하였습니다.

동무들이 딴 살맹이를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따온 살맹이를 한곳에 모으는게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한 동무가 웬일인지 몰라 그건 왜 그러는가고 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한 동무에게 저고리를 벗어 펴놓으라고 하시였습니다.

그 동무는 입고있던 저고리를 널다란 바위우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손수 따신 살맹이를 먼저 쏟아놓으시였습니다.

그러자 동무들도 따온 살맹이를 모두 쏟아놓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따신 살맹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모아놓은 살맹이를 동무들의 수만큼 똑같이 나누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어서 한몫씩 가지라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제일 작은 것을 가지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그때에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왜 살맹이를 한데 모으게 하시였는가를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가라고 하면서 저마다 감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보다 언제나 동무들을 먼저 생각하시였습니다.

제8과
잊을수 없는 그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봉화리에 오신지도 벌써 여러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도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명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계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제경찰 세놈이 달려들어 아버님을 붙잡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놈들을 쏘아보며 엄하게 꾸짖으시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가. 신성한 교실을 더러운 구두발로!》

아버님의 말씀에 기가 꺾인 일제경찰놈들은 뒤걸음질하며 더는 들어서지 못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놈들을 쏘아보시며 무엇때문에 나를 붙잡아가려는가고 따져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붙잡으려고 달려드는 경찰놈들을 뿌리치시고 학교마당으로 태연하게 걸어나가시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학교앞마당으로 마을사람들과 학부형들이 모여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도 어머님과 함께 달려오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흐느끼는 학생들을 껴안으시고 잠간 다녀올테니 조용히 공부하라고 하시며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님의 옷소매를 붙잡고 놓을줄 몰랐습니다.

경찰놈들은 학생들을 사정없이 밀쳐버리며 길을 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참을수 없어 그게 무슨 짓인가고 놈들을 꾸짖으시였습니다.

마을사람들과 학부형들은 선생님께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고 놈들에게 막 들이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을사람들에게 웃음을 지어보이시며 마음을 굳게 먹고 싸워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나어린 대원수님께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을 도우면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놈들의 총부리를 밀어버리시며 천천히 걸어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시여 멀어져가는 아버님을 목메여 부르시였습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일제경찰놈들을 때려눕히고 아버님을 구원하고싶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아버님을 붙잡아간 일제놈들을 기어이 때려부시리라 굳게 다짐하시였습니다.

제9과
《내 저놈들을 때려부시고야 말겠다》

아버님께서 일제경찰놈들에게 붙잡혀 가신지 몇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엽집에 사는 허씨라는 사람이 아버님께서 주신 글쪽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경찰놈들에게 붙잡혀가시는 아버님의 뒤를 따라 맥전나루터까지 갔던 그 사람이 아버님으로부터 몰래 넘겨받은 글쪽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비밀문건을 빨리 없애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비밀문건을 굴뚝옆 지붕의 기와장밑에 숨겨두셨던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재빨리 비밀문건을 찾아내시여 나어린 대원수님과 함께 불사르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말발굽소리가 나더니 말을 탄 경찰놈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집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놈들은 비밀문건을 찾아내려고 집안팎을 발칵 뒤졌습니다.

문밖에서 방안을 들여다보던 아이들은 무서워서 어른들의 등뒤에 숨기까지 하였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러니, 내 저놈들을 때려부시고야말겠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경찰놈들이 왔다갔다하는 방안으로 들어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집안팎을 뒤지며 돌아치는 경찰놈들의

앞을 막아나서며 놈들을 무섭게 쏘아보시였습니다.

집안팎을 뒤지던 경찰놈들이 이번에는 농짝까지 열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볼테면 보라!》고 하시며 옷가지를 꺼내여 놈들에게 내던지시였습니다.

바빠난 경찰놈들은 더는 어쩌지 못하고 아버님께서 보시던 책 몇권을 걷어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제경찰놈들과 굳세게 맞서 싸우시는 어머님을 보시고 많은것을 생각하시였습니다.

《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용감하게 원쑤놈들과 싸울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결심하시며 두주먹을 굳게 틀어쥐시였습니다.

제10과
그네터에서 다지신 맹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7살 나시던 해 봄이였습니다.

봉화리에 계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만경대로 돌아오시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계시는 아버님께서는 돌아오지 못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이 보고싶어 하루에도 몇번씩 어머님께 물으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몇밤 자면 돌아오시나요?》

《한 백밤 자면 돌아오신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잘 믿어지지 않으시여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백밤만 자면 아버지는 이기고 돌아오시나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곧 돌아오신다고 하시면서 나어린 대원수님을 달래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을 따라 만경봉그네터로 올라가시였습니다.

그네터에 이르신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을 안으시고 그네에 앉으시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증손아, 저앞의 대동강얼음이 다 풀리고 나무잎이 푸르러도 너의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네가 어서 커서 아버지 원쑤를 갚아야 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에 힘있게 대답하시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크면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고 나라를 찾을테야요.》



그네터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오냐, 중손아, 어서 커서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아라.》

계속하여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님의 큰뜻을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꼭 나라를 찾는 영웅이 되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을 바라보시며 빨리 커서 아버님의 원쑤를 꼭 갚고야말겠다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만경봉그네터에서 아버님의 원쑤를 꼭 갚으리라 다짐하시였습니다.

제11과
군함바위에서의 군사놀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만경대로 돌아오신지 얼마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고향집옆에 있는 군함바위로 가시였습니다.



군함바위

군함바위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한명한명 그우에 태우시였습니다. 정말 싸움터로 떠나는 군대들이 군함우에 오르는것 같았습니다.

동무들을 다 태우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함바위의 제일 높은 곳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종이로 만든 망원경을 드시고 한참동안이나 남산밑에 있는 일제놈들의 소굴을 바라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후 긴 나무칼을 뽑아드시고 산이 쩡쩡 울리게 명령하시였습니다.

《원쑤 왜놈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베여버리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달려드는 일제놈들을 쓸어눕히는것처럼 나무칼을 휘두르시였습니다.

동무들도 나무칼을 높이 추켜들고 일제놈들을 쳐부시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어찌나 나무칼을 세차게 휘두르는지 동무들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놀이가 끝나자 동무들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장차 왜놈과 싸우자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을 단련해야 한다. 군사놀이를 왜놈 잡는 진짜싸움처럼 생각하고 땀을 흘리면서 해야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빨리 클수 있다. 왜놈을 때려부시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단련해가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모든 동무들이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군함바위에서 군사놀이를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시였습니다.

제12과
고무총이야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때없이 달려들어 집안어른들을 못살게 구는 일제경찰놈들을 혼내주

시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칼을 찬 일제경찰놈들이 만경대고향집으로 몰켜왔습니다.

놈들은 무슨 근거라도 찾아내여 아버님께 더 큰 죄를 들씌우려고 하였습니다.

경찰놈들은 《비밀문건을 내놔라!》, 《어떤 사람이 왔다간 일이 없는가.》고 고아대면서 방안과 부엌을 발칵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놈들은 깨진 독밑까지 뒤져보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밖에서 군사놀이를 하시다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집으로 달려오시였습니다.

그때까지도 경찰놈들은 총칼을 휘두르며 할아버님, 할머님께 비밀문건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고있었습니다.

경찰놈들을 쏘아보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두손은 부르르 떨리였고 눈에서는 불이 일었습니다. 진짜총이 있으면 모조리 쏘아눕히고싶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얼른 조끼주머니에서 고무총을 꺼내드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끝이 뾰족한 사금파리 하나를 주어 고무총에 재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울바자사이로 우두머리놈의 대갈통을 겨누고 쏘시였습니다. 사금파리총알은 《씽》 하고 날아가 그놈의 이마에 면바로 맞았습니다.

《아이쿠!》

그놈은 이마를 한손으로 싸쥐며 죽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무총에 맞은 놈은 사립문밖에 달려나와 꽥꽥거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혼쌀이 난 경찰놈들은 얼마 지나서 달아나고말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경찰놈들을 더 크게 혼내주지 못한것을 분하게 여기시였습니다.

《어디 두고보자. 이다음에 진짜총만 가지게 되면 네놈들을 한놈도 남기지 않고 몽땅 쏘아눕히고 빼앗긴 우리 나라를 찾고야 말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이 사라진쪽을 쏘아보며 이렇게 결심다지시였습니다.

제13과
평양감옥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7살 나시던 해 여름이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께서 계시는 평

양감옥으로 가시였습니다.

평양감옥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은 철로 되여있었습니다. 감옥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감옥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래동안 기다려서야 면회실로 들어가시였습니다. 면회실은 해빛조차 볼 수 없는 컴컴한 방이였습니다.

얼마 지나서 덜컹 하고 문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쇠살창사이로 아버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일제경찰놈들의 고문으로 너무 상해서 인차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을 보시며 밝게 웃고계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네가 그새 컸구나.》라고 하시며 쇠살창밖으로 손을 내미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을

부르시며 두팔을 벌리고 앞으로 나서시였습니다. 그러나 쇠살창이 막혀있어 아버님의 품에 안길수 없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집에 돌아가면 어른들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큰소리로 《예, 아버지도 집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고 대답올리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면회 그만!》 하더니 쇠살창에 철문이 내리닫겼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더 보고싶으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얼굴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만나뵙고 돌아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왜놈들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나 때리였는지 몸이 형편없이 되셨더라.

나는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고야말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런 결심을 다지고 또 다지시였습니다.

제14과
어린 동생을 돌보시며

해마다 봄이 오면 어머님께서는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집을 보시며 어린 동생을 돌보시였습니다.

꽃을 찾아 날아드는 나비떼도 보여주

고 버드나무밑에서 꾀꼴새노래도 들려주시였습니다.

어린 동생은 재미나게 놀다가도 때때로 어머님을 찾으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얼른 버들피리를 만들어 노래를 들려주시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을 찾던 어린 동생은 손벽을 치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젖먹일 때가 되여 동생을 업고 어머님을 찾아 밭으로 나가시였습니다.

밭김을 매시던 어머님께서는 땀을 씻으며 어린 동생을 받아안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동생을 돌보느라고 애쓰시는 나어린 대원수님을 생각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증손아, 이젠 동무들하고 같이 나가서 재미나게 놀아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을 바라보시며 그러면 동생은 누가 보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발머리에 놔두면 혼자 놀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생이 벌레한테 물릴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나어린 대원수님의 말씀에 어머님께서는 가슴이 뜨거우시였습니다.

그때 집안어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어린 동생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 일을 스스로 맡아하신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다음에도 어린 동생을 잘 돌보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밥을 지으실 때나 바느질을 하실 때면 늘 어린 동생과 함께 재

미나게 노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잘 따르고 좋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실 때부터 어린 동생을 사랑하며 잘 돌봐주시였습니다.

제15과
《우리 대장》

만경대에는 많은 아이들이 살고있었습니다. 그가운데는 경애하는 대원수님보다 나이가 서너살 우인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대장으로 내세우고 《우리 대장》이라고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것은 어떤 놀이를 하시든지 뛰여난 생각으로 동무

들을 잘 이끄시였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사놀이를 하실 때마다 조선편과 왜놈편으로 편을 갈라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사놀이가 시작되면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조선군대는 한걸음도 물러서서는 안된다.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놈〉들이 도망치면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야 한다.》

그러시면서 조선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겨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놀이에서 이길수 있는 방법도 하나하나 알려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배워주신대로 놀이를 하군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놀이든지 꼭꼭 이겼습니다.

그래서 군사놀이때면 모든 동무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잘 거느리시였습니다.

한번은 많은 동무들이 집옆에서 떠들며 뛰놀고있었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방문을 열고 밖에 나오시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놀고있는 곳을 돌아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많던 동무들이 한명도 없이 사라지고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앞으로 훌륭한 장군이 되실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실 때부터 《우리 대장》으로 높이 불리우면서 굳세게 자라시였습니다.

제16과
만경봉씨름터에서

어느해 여름날 만경봉씨름터에서는 씨름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여러 동무들과 씨름을 하여 다 이기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동무와 씨름을 하여 비기게 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에 다시 하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내려오시였습니다.



만경봉씨름터

그날 저녁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 씨름에서 이길 궁리를 하느라 잠들지 못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님께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래일 아침에 죽을 두사발만 주세요.》

어머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 그건

왜 그러느냐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나어린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 큰 동무와 씨름해서 이기려고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잠자리에 누우시였지만 끝내 잠들지 못하시였습니다.

옆에 계시던 할머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할머니, 난 래일 씨름에서 이길 궁리를 하고있어요.》

나어린 대원수님께서는 할머님께 씨름터에서 있은 일을 죄다 이야기하시였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이가 3살이나 적으면 힘내기에서 비길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시였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적다고 못이기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난 꼭 이기고말테야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신있게 대답하시였습니다.

다음날 만경봉씨름터에서는 또다시 씨름이 시작되였습니다.

그 동무는 재빨리 몸을 펴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다리를 걸어채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날쌔게 그 동무를 바싹 끌어당기면서 궁둥배지기로 업어넘기시였습니다.

《우리 대장 이겼다.》

모여섰던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씨름은 서로 비기고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서 세번째 씨름이 시작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동무를 바싹 틀어쥐고 여러번이나 빙빙 돌리시

였습니다.

그 동무는 옆으로 업어넘기는줄 알고 다리를 모두며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재빨리 왼손으로 그 동무의 다리를 툭 치시였습니다.

순간 그 동무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이겼다.》

동무들은 또다시 환성을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넘어진 그 동무의 손을 잡아일으켜주시면서 이마의 땀을 씻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리실 때부터 어떤 놀이에서나 기어이 이기군 하시였습니다.

제17과
일제놈들을 때려잡는 마음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무슨 놀이를 하시든지 일제놈들을 때려잡는 마음으로 하시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뒤산에서 진치기놀이를 하던 한 아이가 뱀을 잡았습니다. 뱀은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렸습니다.

정말 보기만 하여도 끔찍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꿈틀거리는 뱀을 나무가지에 매달아놓고 동무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자, 이 뱀이 왜놈이다. 모두 나무막대기를 하나씩 얻어다 때려죽여라. 왜놈들은 죄없는 조선사람들을 잡아다 닥치는대로 죽이고있다. 그러니 악귀같은 왜놈들을 때

려잡는 마음으로 이 못된 뱀을 왜놈으로 알고 죽여라.》

아이들은 저마다 달려가서 나무가지를 하나씩 얻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놈, 이놈》 하면서 뱀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녀자아이들은 나무막대기를 쥐고서도 무서워 때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 한걸음한걸음 물러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무서워 떨고있는 아이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뱀이 그렇게 무서우면 왜놈들을 어떻게 잡겠느냐. 너희들은 조선사람을 마구 죽이는 왜놈들이 밉지도 않느냐. 왜놈들앞에서 떨기만 하다가 값없이 죽으면 되겠느냐. 우리들은 지금부터 왜놈들을 맞받아싸우는 련습을 부지런히 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그제서야 이를 악물고 뱀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앞을 지나시던 할머님께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증손아, 너무 장난이 심하구나. 뱀한테 물리겠다. 조심해라.》

할머님께서는 걱정스러워 가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서계시였습니다.

그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무막대기로 뱀을 내리치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놈은 왜놈과 같은 나쁜 놈이여서 때려죽여야 해요.》

그리시고는 더욱 세차게 뱀을 때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모든 아이들이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하여 뱀은 잠간사이에 죽탕이 되고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뱀을 때리시면서도 동무들에게 일제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주시였습니다.

제18과
일본놈들의 술심부름을 하지 않게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던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만경대에 땅을 재러 나왔던 일본놈들이 어느 한 집에서 쉬여가게 되였습니다. 놈들은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주인집아이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하는수 없이 술병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녁때가 지나도 술을 사러

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 아들을 찾아떠났습니다.

아들을 찾아다니던 그 어머니는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처럼 찾고있던 아들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동네아이들과 함께 숨박곡질을 하고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보시자 그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시였습니다.

그제서야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왜 술을 사오지 않았는가를 알게 되였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술을 사러 떠나는 그 아이의 뒤를 따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마을을 벗어나자 그에게 일제놈들은 우리 나라를 빼앗고 조선사람을 못살게 구는 나쁜 놈들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놈들의 술심부름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이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들고있는 병을 받아쥐고 일제놈들은 이렇게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시며 바위돌에 힘껏 던지시였습니다. 병은 잠간사이에 박산나고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술을 사오지 않아 일본놈들에게 욕을 먹을가봐 무척 겁나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겁나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저녁늦게까지 숨박곡질놀이를 하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 어머니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아들이 술을 사가지고 오다가 넘어져 술병을 깨쳤다고 놈들을 속여넘기였습니다.

일본놈들은 하는수 없이 술추렴을 하지 못한채 돌아갔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뛰여난 생각으로 동무들이 일본놈들을 돕지 않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19과
옳고 그른것을 일깨워주시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동무들의 잘못을 제때에 바로 잡아주시였습니다.

초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송산리 밤나무골에 밤을 따러 가자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너무 좋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밤나무골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밤나무가 많았는데 아지마다 밤송이가 탐스럽게 달려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밤송이들을 바라보시며 이 밤나무들은 모두 지주놈의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주놈은 흰쌀밥에 고기국만 먹으면서도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밤을 한톨도 남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지주놈은 나쁜 놈이다. 지주놈이 없어야 우리가 잘살수 있다.》

그리고 동무들에게 어서 밤을 실컷 따먹으라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그때에야 지주놈의 밤이라는것을 알고 밤을 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동무들은 온종일 밤을 따먹고도 많은 밤을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지주놈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땀을 짜내는 나쁜 놈들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주놈이 없어야 우리가 잘살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동무들은 지주놈의것이라면 모조리 짓밟고 없애버렸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대신 가난한 사람들의것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시였습니다.

초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군함바위옆에서 군사놀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는데만 정신이 팔렸던 동무들이 돋아나기 시작

한 조를 마구 짓밟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급히 달려가시여 놀이를 당장 그만두게 하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동무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땀흘려 가꾼 곡식을 밟으면 되겠느냐. 저 어린 싹을 밟아놓으면 조가 자라도 이삭이 나올수 없다. 한대의 조라도 죽이지 말고 잘 키워야 우리가 먹을 낟알을 그만큼 더 거둘게 아니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동무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만경봉으로 올라가서 군사놀이를 계속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실지행동으로 동무들에게 옳고 그른것을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제20과
지주 아들놈을 혼내우신 이야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지주놈들을 끝없이 미워하시였습니다.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평양성안에서 사는 지주놈이 제 아들까지 데리고 만경대에 나왔습니다.

지주놈은 농민들이 힘들게 일할 때는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가을이 오면 더 많은 낟알을 빼앗아가려고 만경대에 기여들었습니다.

지주놈은 마을에 들어서기 바쁘게 논밭을 싸다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주 아들놈은 혼자 남아서 빈둥거리며 놀고있었습니다.

그날 만경대아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군사놀이를 하고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수대총으로 저쪽편 아이들을 겨누고 《땅》 하고 입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면 저쪽편의 아이는 총에 맞아 죽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놀고있는데 지주 아들놈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놈은 자기보다 어린 아이가 메고있는 수수대총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말하였습니다.

《애, 이게 무슨 총이야. 시시하게 수수대를 가지구…》

그러면서 자기 집에는 진짜총과 꼭같이 만든 총이 두자루나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어린 동무는 그놈을 쏘아보며 그까짓건 부럽지도 않다고 하면서 썩 물러가라고 하였습니다.

성이 난 지주 아들놈은 어린 아이가 메고있는 수수대총을 빼앗아 뚝 꺾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는 너무도 분하여 그놈에게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어린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나는듯이 달려가 그놈의 팔을 힘껏 잡아채시였습니다. 지주 아들놈은 손쓸사이도 없이 땅바닥에 벌렁 나가자빠졌습니다.

지주 아들놈을 쏘아보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눈에서는 불이 이는듯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놈을 쏘아보시며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다시 손을 댔다가는 용서치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였습니다.

그놈은 경애하는 대원수님보다 키도

훨씬 컸지만 달려들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바-지!》 하고 제 애비를 찾으며 내뺐습니다.

아이들은 달아빼는 지주 아들놈을 보면서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저놈도 제 애비와 같은 놈이라고 하시면서 저런 놈들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저런 놈들을 없애자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모두 한편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지주 아들놈은 마을에 얼씬도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지주 아들놈을 혼내우시였습니다.

제21과
《왜놈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활쏘기놀이도 자주 하시였습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활쏘기놀이를 하기 위하여 동무들을 데리고 고향집 뒤산에 오르시였습니다.

동무들은 활과 화살 그리고 짚으로 만든 목표를 메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산으로 오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앞에 있는 큰 소나무에 목표를 매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사이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목표로부터 20m 되는 곳에 활쏘는 장소를 만드시였습니다.

잠간사이에 활쏘기준비가 끝났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동무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저 나무에 매단것이 왜놈이다. 활은 한사람씩 차례로 쏘는데 화살은 매 사람에게 세개씩 주겠다. 화살 세개를 다 맞히면 한번 더 쏠수 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고나서 활을 먼저 쏘시였습니다.

화살을 재우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활줄을 힘껏 당겼다가 슬며시 놓아주시였습니다. 그러자 화살은 《씽-》하고 날아가 목표의 가운데 들어박혔습니다.

《맞았다!》

동무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두번째도

세번째도 모두 맞히시였습니다.

정말 일제놈들의 가슴팍에 총알이 들어박힌것처럼 세개의 화살이 나란히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동무들이 차례로 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무들은 하나씩 맞히고 또 어떤 동무들은 하나도 맞히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도 맞히지 못한 동무들은 분하여 머리를 기웃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때마다 활 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쏘아보게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라도 맞히면 손벽을 치며 기뻐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활을 다 쏜 다음 세번이나 더 쏘시였습니다. 그 세번도 다 목표중심에 들어가

맞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부러워하는 동무들에게 부지런히 련습하면 누구나 다 맞힐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다음부터 동무들은 활쏘기놀이에 더 자주 참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활쏘기놀이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시였습니다. 어떤 때는 서서 쏘고 어떤 때는 뛰여가다가 멈춰서서 쏘게 하시였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무들이 활쏘기를 하다가 쉬고있는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고향집뒤에 서있는 나무에 오르시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서 다시 내려오시며 큰소리로 웨치시였습니다.

《저기 조선사람을 못살게 구는 왜놈들이 있다.》

동무들은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모두 나를 따라 앞으로! 왜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라.》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쏜살같이 앞으로 내달리시였습니다.

동무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순화강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모든 동무들이 순화강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강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리키시며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저것이 왜놈들이다. 단번에 몰살시키자!》

그러시고는 누구보다먼저 활을 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진짜 일제놈을 쏘는것처럼 나무에 대고 활을 쏘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활쏘기가 끝나자 오늘 놀이는 아주 잘되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활쏘기를 잘한 동무들을 한명한명 부르시며 칭찬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활쏘기놀이도 일제놈들을 쏘아잡는 마음으로 하도록 동무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22과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가난한 집 아이들을 따뜻이 돌봐주시였습니다.

어느날 동무들과 함께 군사놀이를 하

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저녁에야 집으로 들어오시였습니다.

그런데 신으셨던 짚신은 어떻게 하셨는지 맨발로 들어오시는것이였습니다.

할아버님은 나어린 대원수님께서 짚신을 잃어버린줄로만 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 할아버님께서 주신 새 짚신을 신고 밖으로 나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또다시 맨발로 들어오시는것이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신은 어떻게 하고 매번 맨발로 들어오는가고 나무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때에야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동무들가운데는 아직 짚신도 신지 못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혼자만 신을 신고 다니겠어요. 우리가 못살아도 다같이 나누어 신고 살면

더 좋지 않아요. 아직 신을 못 신고있는 아이들에게 짚신이라도 많이 삼아줄수 없나요.》

정말 어른들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밤마다 등잔불을 켜놓고 더 많은 짚신을 삼으시였습니다. 맨 벼짚으로 삼은 신은 질기지 못하다고 하시며 짚신바닥에 삼까지 섞어 삼아주시였습니다.

한번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군사놀이하러 간다고 하시며 짚신 10컬레를 묶는것이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무슨 신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느냐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할아버지, 군사놀이를 하는 우리 동무들중에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동무가

열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동무들에게 꼭같이 나누어줘야지요.》

할아버님께서는 나어린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머리를 끄덕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다음에도 신을 신지 못한 동무들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신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하루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새 짚신을 신고 밖으로 나오시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던 한 녀동무가 그 짚신을 보고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그 동무는 신을 신지 못하고있었던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시였다가 할아버님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오시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그 동무를 부르시여 신을 인차 삼아주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잠간사이에 짚신 한컬레를 곱게 삼아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동무에게 짚신을 신겨주시고 발에 맞는가 손으로 발끝을 꾹꾹 눌러보기까지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습니다.

제23과
참새잡이를 하시면서도

눈이 내린 겨울 어느날이였습니다.

산과 들은 새하얀 눈으로 뒤덮이였습니다. 이런 날이면 참새들이 먹을것을 찾아 살림집마당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날도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집으로 모여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모여오자 오늘은 참새잡이를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한 동무를 시켜 새덫을 가져오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져온 새덫을 보시고 참새들이 많이 내리는 조낟가리쪽으로 가자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낟가리옆에 자리를 잡고 눈을 깨끗이 쓸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자리에 좁쌀을 한줌 뿌려놓고 새덫을 나무막대기로 버티여놓았습니다.

정말 얼마동안 있으니 참새들이 먹을것을 찾아 날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새들은 새덫밑에 뿌려놓은 먹이를 쪼아먹느라고 짹짹거렸습니다. 그러다가도 겁이 많은 참새들은 날아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군 하였습니다.

새덫안에 여러 마리의 참새들이 들어

갔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손에 쥐였던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시였습니다. 그러자 나무막대기에 걸쳐있던 새덫이 털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동무들은 너무 기뻐 새덫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덫안에서는 여러 마리의 새들이 푸드득거렸습니다.

동무들은 저마다 새덫안에 든 참새를 꺼내려고 덤볐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렇게 덤비면 참새들이 새여나갈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제일 나어린 동무가 잡아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어린 동무에게 맡기시였습니다.

어린 동무는 덫안에 든 참새를 한마리 한마리 잡아내여 동무들의 손에 쥐

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쥐고있는 참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참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땀흘려 지은 낟알을 먹는 나쁜 새이다. 그러니 모두 잡아없애야 한다. 우리는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왜놈들도 이 참새처럼 몽땅 잡아치워야 한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일제놈들을 참새처럼 몽땅 잡아없애리라 굳게 마음다졌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참새잡이를 하시면서도 동무들에게 일제놈들을 때려부실 마음을 키워주시였습니다.

제24과
썰매타기경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썰매타기경기를 조직하시여 동무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시였습니다.

어느해 겨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썰매타기를 하시려고 얼음판으로 나가시였습니다.

얼음판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세편으로 나누어 썰매를 타고 이어달리는 경기를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힘이 센 동무와 약한 동무들이 골고루 섞이게 편을 가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얼음판우에 출발선을 그어주시였습니다.

준비구령에 따라 세편의 첫번째 선수들이 출발선에 나와 섰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선수들의 준비정형을 알아보신 다음 출발구령을 내리시였습니다.

경기는 첫번째 선수가 썰매를 타고 제정된 곳을 돌아오게 되여있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선수가 이어받아 그곳까지 또 돌아오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세편의 선수들은 제각기 힘을 내여 썰매를 몰아갔습니다. 옆에서는 자기편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경기에서 이긴 편을 앞에 내세우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진 편 아이들은 이긴 편 아이들을 썰매에 태우고 끌어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에 따라 진편 동무들은 이긴 편 동무들을 썰매에 태우고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긴 편 동무들은 진 편 동무들의 썰매에 올라타고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진 편 동무들은 경기에서 진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대신 좋다고 웃고있었습니다.

썰매끌어주기가 끝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모여앉히고 경기총화를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오늘 경기는 다 잘되였는데 진 편 동무들이 지고도 좋다고 웃은것이 잘못되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경기에서 이기려면 모든 동무들이 이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기와 놀음놀이를 자주 하는것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자는데 있다.

경기를 통해서 몸도 단련하고 상대편을 이기겠다는 정신을 키워야 앞으로 왜놈과 싸워 이길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상대편을 이기겠다는 정신을 키워야 앞으로 왜놈들과 싸워 이길수 있다는것을 동무들에게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제25과
《조선독립 만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8살 나시던 해 3월 1일이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억눌려살던 우리 인

민들이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났습니다.

이날 평양에서는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일제놈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렸습니다.

그들은 《조선독립 만세!》,《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싸웠습니다.

시위대렬이 거리로 밀려나오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합쳐졌습니다.

만경대와 칠골인민들도 대렬을 지어 평양으로 밀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북과 징을 울리고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면서 보통문쪽으로 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안어른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시며 시위투쟁에 참가하시였습니다.

시위대렬이 보통문앞에 이르렀을 때

였습니다.

말을 탄 일제경찰놈들이 시위에 떨쳐나선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총탄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시위군중은 두려움을 모르고 일제놈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경찰놈들의 총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쓰러지면서도 놈들에게 돌을 던지고 만세를 웨치면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사람들이 일제놈들이 쏘는 총에 맞아 쓰러지는것을 처음으로 보시였습니다.

보통문앞까지 가시였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오늘 평양성안에 들어가보니 대단하더라. 만경대사람들이 대오를 지어 평양으로 나가다가 비석거리에서 칠골사람들과 합치니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길이 메여지게 꽉 차서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 나도 보통문까지 가서 〈조선독립 만세!〉를 힘껏 부르고 왔다.》

날이 어두워오자 만경대사람들은 홰불을 들고 만경봉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북을 치고 양철통까지 두드리면서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만경봉에 올라 독립만세를 힘차게 웨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마을사람들을 위하여 마실 물도 길어오고 홰불로 쓸 겨릅대도 날라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만세를 부르시다가도 어머님께로 달려가 바쁜 일

손을 도와드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리신 나이에 시위투쟁에 참가하여 일제놈들과 싸우시였습니다.

제26과
배놀이하는 왜놈과 지주놈을 혼내우신 이야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왜놈과 지주놈을 다같이 미워하시였습니다.

무더운 삼복철의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동무들을 데리고 만경봉에 올라가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대동강쪽 벼랑턱에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계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랑아래쪽에서 뚱땅뚱땅하는 장고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장고소리에 맞추어 부르는 혀꼬부라진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노래소리가 나는 벼랑아래쪽을 내려다보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배가 떠있었습니다.

배안에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놈들과 양복을 입은 놈이 타고있었는데 술놀이를 하는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배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얘들아, 저 두루마기를 입은 놈들은 땅이 많은 지주놈들이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쪽을 바라보며 흰 두루마기를 입은 뚱뚱보가 지주놈이 틀림없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양복쟁이놈은 또 어떤 놈일가?》 하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양복을 입은 놈을 가리키시며 《아니 저놈은 왜놈이다!》 하고 큰소리로 웨치시였습니다.

이때 한 동무가 나서며 지주놈도 조선사람인데 왜 일제놈과 술을 처먹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지주놈들은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지껄여도 조선을 왜놈들에게 팔아먹는 개놈들이라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그제서야 지주놈들이 나라를 왜놈들에게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뚱땅거리며 놀고있는 왜놈과 지주놈들을 그냥 두실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번쩍 드시여 벼랑밑

으로 힘껏 던지시였습니다.

엽에 있던 동무들도 저마다 큰 돌을 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은 쿵쿵 소리를 내며 벼랑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돌벼락을 맞은 왜놈과 지주놈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배머리를 돌려 먼곳으로 달아뺐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멀리 달아빼는 놈들의 배를 통쾌하게 바라보시며 다짐하시였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은 그래 내앞에서 달아뺄수 있지만 이담에는 어림도 없다. 네놈들을 이 땅에서 한놈도 남김없이 몽땅 없애치울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배놀이하는 왜놈과 지주놈을 혼내우시였습니다.

제27과
몸을 단련하시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몸을 단련하는데 좋은 놀이를 많이 하시였습니다.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동무들은 만경봉그네터에서 숨박곡질놀이를 하고있었습니다.

동무들이 한창 놀고있을 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네터에 올라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오늘은 모래터에 가서 놀자고 하시였습니다.

모래터에 이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빙 둘러앉히시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이 커서 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자면 몸이 튼튼해야 한다. 그런데

어제 군사놀이를 할 때 보니 굼뜬 아이들이 많더라. 낮은 산등성이 하나 단숨에 오르지 못하고 어떻게 왜놈치는 군사가 되겠느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달리기련습을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먼저 바지가랭이아래를 든든히 묶고 그안에 모래를 넣으시였습니다.

《이렇게 바지가랭이안에 모래를 넣고 뛰는 련습을 많이 하면 날랜 몸이 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뛰여보기까지 하시였습니다.

동무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하시는대로 바지가랭이안에 모래를 넣고 달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몇발자국을 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바지가랭이안에 넣은 모래를 만져보시며 타이르시였습니다.

《처음부터 모래를 많이 넣으면 못 뛴다. 처음에는 모래를 조금씩 넣고 뛰다가 차츰 많이 넣어야 한다.》

그제야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모래를 조금씩 넣고 뛰다가 점차 많이 넣고 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날 련습을 거듭하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모여놓고 이번에는 모래를 넣지 말고 달려보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몸이 훨훨 나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동무들은 만경봉까지 힘든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잔솔나무도 쉽게 뛰여넘으시며 맨 먼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시였습니다.

그때에야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왜 모래를 넣고 뛰는 련습을 하게 하시였는가를 알게 되였습니다.

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동무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너희들이 여러날 땀을 흘리며 련습을 잘했기때문에 오늘 우리모두는 이렇게 산봉우리를 쉽게 점령하게 되였다.

그러니 래일부터는 〈왜놈의 진지〉를 점령하는 군사놀이를 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그 다음날부터 《일제놈들의 진지》를 치는 군사놀이를 하시였습니다.

군사놀이를 얼마나 세차게 하였는지 동무들속에는 신발이 해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신고있던 짚신을 한 동무에게 벗어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네 신이 다 해졌구나. 이 신을 신어라.》

그 동무는 너무 미안해서 그 짚신을 받지 않으려고 달아났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끝까지 따라가서 짚신을 신겨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가 짚신 한컬레 변변히 신지 못하는것도 다 왜놈들때문이다. 그러니 왜놈을 몰아내고 나라 찾는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단련을 잘해야 한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새기며 몸을 더욱 튼튼히 단련할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몸과 마음을 단련하도록 동무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제28과
다시 만날 날이 꼭 올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8살 나시던 해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무슨 놀이를 하자고 하실가 하고 생각하며 이른아침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사립문앞에 이른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고기잡으러 가자고 하였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만경봉에 올라가 씨름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방문을 열고 나오시였습니다.

《오늘은 만경봉에 올라가 이야기나 나누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동무들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만경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자리까지 정해놓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흐르는 대동강과 높이 솟은 산들을 둘러보시다가 말씀하시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고향 만경대는 정말 볼수록 아름답구나! 이곳에 사는 우리 부모형제들은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분들이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향산천과 착한 마음들이 왜놈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니 통분한 일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동무들은 고향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향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무들이 왜놈들에게 빼앗

긴 고향을 생각하며 가슴아파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만경대사람들은 지난 봄에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잘 싸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제놈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아버님께서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잠시 동무들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래일 아버지를 따라 멀리 압록강이 있는데로 간다.》

동무들은 뜻밖의 말씀에 아무말도 못하다가 정말 떠나시는가, 이제 가면 언제 오시는가고 물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떠나지 말라고 조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

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이 아름다운 만경대에서 살면서 공부도 하고 재미나게 뛰놀았으면 좋겠다.》

그리시면서 만경대에서 살지 못하고 동무들과 헤여지는것도 일제놈들때문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이 헤여진다 해도 꼭 다시 만날 날이 올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도 만경대에서 재미나게 놀던 어린시절을 잊지 말고 몸과 마음을 억세게 준비해나가자.》

다음날 아침이였습니다.

동무들은 먼길을 떠나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바래워드리려고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고향집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와 인사를 나누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할아버님, 할머님께 허리굽혀 인사를 드리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아버님앞에서 큰걸음을 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헤여지는것이 섭섭하여 계속 따라나섰습니다.

아무 말씀없이 걸으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둔덕길에 오르시여 동무들의 손목을 잡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잘 있어라. 우리 다시 만날 날이 꼭 올것이다.》

동무들은 눈물이 앞서 대답도 변변히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길을 떠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멀어져가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손저어 바래워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동무들과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시고 먼길을 떠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소학교 제2학년용)

제3판

집 필 부교수 강홍수	편 집 리 철
심 사 심의위원회	콤퓨터편성 전명희
장 정 류명심	교 정 리분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8(2009)년 4월 10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2월 3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2월13일

교-11-보-155 값 10 원